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시청 과정에서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

엄기영 MBC 보도국 기자, 부장

김나래 University of Nevada, Reno, Reynolds School of Journalism, 조교수

박진우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Impact of Political Expression on Political Attitude Polarization in the Social Viewing Process of YouTube News*

Ki-young Eom**

(Ph.D., Reporter, Editor, MBC)

Narae Kim***

(Assistant Professor of Advertising, Reynolds School of Journalism, University of Nevada, Reno)

Jinwoo Par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edia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rise of YouTube as a primary news source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escalation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through which watching news on YouTube contributes to political polar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viewing,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and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Exploring these relationships goes beyond a simple quantitative understanding of news consumption and provides insight into how users' active engagement, exposure to diverse perspectives, expressive behavior,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interact in the news consumption proces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social viewing of YouTube news on political polarization was mediated by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individuals who engaged in higher levels of social viewing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which in turn reduced political polarization. At the same time, those who engaged in higher levels of social viewing also tended to increase their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which led to a

* This study is based on the doctoral dissertation(2024, 8) of Ki-young Eom at Hanyang University(본 논문은 엄기영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4, 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fortuna@mbc.co.kr

*** naraek@unr.edu

**** creativejw10@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rise in political polar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viewing of news on YouTube can either exacerbate or mitigate political polarization. Another noteworthy finding is that, during the social viewing of news on YouTube the weaker the tendency toward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the more pronounced the mitigating effect of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on political polarization. Specifically, the group with a weak tendency toward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showed the strongest mitigation effect on political polarization, and even the group with an average tendency exhibi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itigating effect. However, in the group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no mitigating effect of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on political polarization was observed. Meanwhile, in the pathway from social viewing of YouTube news to political polarization through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no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found for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In other words, political polarization was found to intensify across all groups, regardless of their degree of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plays a critical role in mitigating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context of YouTube news consumption. In order to encourage such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it is essential to move beyond selective exposure based on political orientation and make efforts to utilize a variety of media sources.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demonstrate that consuming news from diverse perspectives—through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san news media exposure—plays a key role in reduc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how social viewing of news on YouTube influences political polarization.

Keywords: social viewing, political expression, political polarization,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news on YouTube

국문초록

뉴스를 접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부상하면서, 정치적 태도극화가 심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시청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시청, 정파적 정치표현, 교차적 정치 표현, 정파적 뉴스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관계의 탐색은 뉴스 이용의 단순한 양적 측면을 넘어 이용자의 적극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노출과 표현 행위, 타인과의 소통 등이 뉴스 이용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표현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차적 정치표현의 정도가 늘어났고 그 결과 정치적 태도극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 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파적 정치표현의 정도 역시 증가했는데, 이는 정치적 태도극화의 증가로 이어졌다.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이 정치적 태도극화를 심화시킬수도 있지만 감소시킬수도 있는 가능성을 엿본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덜할수록 교차적 정치표현을 통한 정치적 태도극화의 완화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약한 그룹에서 정치적 태도극화의 완화 효과가 가장 컸으며, 보통인 그룹에서도 이런 완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파적 뉴스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강한 그룹에서는 교차적 정치표현을 통한 정치적 태도극화 완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의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경향 정도가 정파적 정치표현을 매개로 정치적 태도극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매개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경향의 강도와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정치적 태도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결과는 유튜브 뉴스 이용 과정에서 정치적 태도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차적 정치표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교차적 정치표현을 촉진하기 위해선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의 조절효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정치적 태도극화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유튜브 뉴스 이용에서의 사회적 시청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사회적 시청, 정치 표현, 정치적 태도극화, 정파적 뉴스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유튜브 뉴스

1. 서론

현재 뉴스 소비는 혼종적(hybrid)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TV 뉴스를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댓글창에 글을 작성하거나,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으며 페이스북 또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견을 공유한다. 특히, 댓글은 여론을 확인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뉴스 미디어의 주요 기능적 특징 중 하나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이은주, 2011).

이러한 미디어 이용 방식의 변화는 뉴스 이용자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뉴스 이용자는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였으나, 현재는 뉴스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해석하는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Shah et al., 2017). 참여적 뉴스 이용자는 공론장에서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양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공적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정치참여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성향에 맞는 뉴스만 소비하는 선택적 노출로 인한 태도극화의 심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대표적이다(Levendusky, 2013; Stroud, 2007, 2010). 정치적 태도극화는 이념 성향이 다른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태도 격차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 태도극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민영, 2016).

유튜브 뉴스 이용이 정치적 태도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유튜브 뉴스 이용자가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에 귀 기울이고 태도극화를 줄이는 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정치적 태도극화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연구는 많지만, 태도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Warner et al., 2020). 선행 연구들은 공통된 정체성(Levendusky, 2018), 정치적 외집단과의 토론 및 상호작용(Bond et al., 2018),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지 표현 및 비판적 시청(엄기영·박진우, 2024; Lee & Cho, 2023) 등을 태도극화 완화의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타인과의 정치적 대화가 다원적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 변인이라 말한다(Mutz & Martin, 2001).

유튜브는 다양한 정치 담론에 노출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타인과의 정치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에선 이런 이유로 유튜브를 통한 뉴스와 정치 정보 획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뉴스 매체로써 유튜브가 정치적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장승진·한정훈, 2021; 최진호·이현우, 2023; Shah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는 유튜브 뉴스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변인들이 개인의 정치적 태도극화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각각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시청과 정치 표현이 정치적 태도 극화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이 미디어 이용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논의하면서 미디어 이용량보다 매개변인의 역할에 주목했고(Chen, 2021; Cho et al., 2009; Shah et al., 2017),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시청은 TV와 소셜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최윤정, 2014, 2018a, 2018c; Gil de Zuniga et al., 2015), 정치표현은 개인이 가진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적극적 반응을 말한다(Lee & Cho, 2023). 이러한 변인들은 뉴스 이용의 단순한 양적 측면을 넘어, 이용자의 적극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노출, 표현 행위, 타인과의 소통 등이 뉴스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종합적으로 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을 의미하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의 조절 효과에 주목하였다.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 정치 성향과 선택적 노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민영, 2016; 최지향, 2015; Garrett et al., 2014; Levendusky, 2013; Stroud, 2010). 본 연구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치적 태도극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튜브 뉴스 이용 방법은 무엇인지, 건전한 공론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2. 이론적 논의

1)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

유튜브는 뉴스 유통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로이터저널 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53%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 TV 뉴스 역시 유튜브를 통해 상당 부분 소비된다. TV로 뉴스를 시청할 때와는 달리 유튜브를 통해 TV 뉴스를 시청하면 댓글창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댓글창은 뉴스에 대한 여론 기류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전통적 뉴스 매체인 TV와 신문과 차별화되는 디지털 뉴스의 대표적 특징으로 간주된다(이은주, 2011).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시청할 경우, 댓글 기능 활용은 더욱 활발해진다. 이용자들은 TV 뉴스 동영상을 시청하며 실시간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댓글이나 채팅창 토론은 정치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함의를

제공한다(민영 등, 2022).

이러한 뉴스 소비 방식은 전통적 TV 시청(viewing)과 온라인의 사회적(social)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새로운 TV 시청 형태로 간주된다(최윤정, 2014). 과거 개인화의 상징이었던 TV 시청 행위가 타인과의 사회적·정치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매체 이용 행위를 사회적 시청(social viewing)이라 정의했다. 사회적 시청은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여 시청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거나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윤정, 2014, 2018a; Gil de Zuniga et al., 2015). 연구자에 따라 '두 번째 스크린(second screening; Giglietto & Selva, 2014)' 또는 '이중 시청(dual viewing; Vaccari et al., 2015)'이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사회적 시청', '이중 시청' 등과 같이 명명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치적 대화를 나누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듯 온라인에서 추가 정보를 얻는 것과 토론하는 행위는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Barnidge et al., 2017).

이런 사회적 시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도, 프로그램 시청 전후에도 이뤄질 수 있다. 매체 특성과 개인의 이용 방식에 따라 TV 시청과 동시에 의견 교환과 공유가 이뤄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 시청 전후에 유튜브 댓글 창을 통해 더욱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배진아와 최소망(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은 실시간 시청 당시 뿐만 아니라, 시청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시청 단계에 따른 소셜미디어 게시물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뉴스 시청과 업로드된 뉴스 클립을 시청하는 과정 혹은 시청 전후에 댓글창을 통해 의견을 작성하고 토론을 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여 사회적 시청이라 명명했다.

본 연구가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적 시청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정치적 대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최윤정, 2018a, 2018d). 선행 연구들은 이런 정치적 대화가 뉴스 이용을 통해 촉진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Eveland, 2004; Shah et al., 2017), 몇몇 사회적 시청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시청은 온·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Gil de Zúñiga et al., 2015; Vaccari & Valeriani, 2018), 사람들은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arnidge et al., 2017). 채드윅(Chadwick, 2017)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트위터 연구에서, 트위터 공간이 TV가 전달하는 사건과 이슈를 중심으로 기성의 정치 담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했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사회적 시청 연구는 주로 엑스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과거 뉴스와 정치 정보를 소비하는 매체로써 엑스와 페이스북의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뉴스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고, 국내 디지털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가 매우 중요한 매체임을 감안하면(최진호·이현우, 2023), 유튜브 뉴스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시청 연구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뉴스 이용자들은 다른 매체에서 뉴스를 이용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작성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밝혀져(최진호·이현우, 2023) 사회적 시청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상과 TV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인 및 단체의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와 정치 정보를 시청하면서 댓글을 읽는 행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동영상상을 공유하거나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2) 사회적 시청과 정치표현

정보의 수용과 표현적 행동은 별개의 요소로 구분된다(Chen, 2021). 예를 들어, 개인이 유튜브 뉴스를 시청하면서 댓글창에서 타인의 의견을 접했을 때, 댓글창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표현(political expression)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선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내릴 수 있다(Cho et al., 2018; Vaccari et al., 2015).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미국 연방대법원은 글쓰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 클릭과 같은 행위도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치표현으로 인정했다(Robbins, 2013)

선행 연구들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표현이 정치적 관심을 고취하고 온·오프라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밝혀왔다(Gil de Zúñiga et al., 2012; Lane et al., 2019). 특히, 댓글을 통해 표출되는 정치표현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형성과 태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이은주, 2011; Cho et al., 2018; Lee & Cho, 2023).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표현의 개인적 효과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왔다(Bennett & Iyengar, 2008; Cho et al., 2018; Levendusky, 2013). 이용과 충족 이론 역시 능동적 수용자의 관점에서, 메시지 수신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고 관심을 두며 접하게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Katz et al., 1973).

하지만 수신자는 단순히 메시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가

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이들 연구의 핵심은 온라인 정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작성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가 단순히 메시지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개인에게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Cho et al., 2018; Kwak et al., 2018; Lee & Cho, 2023; Lee & Myers, 2016; Pingree, 2007; Shah et al., 2017; Vaccari et al., 2015). 핑그리(Pingree, 2007)는 이런 정치표현의 효과에 대해 작성 효과(composition effects)와 공표 효과(message release effects)로 구분해 설명했다. 작성 효과에 따르면, 개인은 의사 표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작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기존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기존 신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공표 효과는 개인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외부에 표출한 메시지와 일치하도록 본인의 정치적 태도나 행동을 조정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런 심리적 매커니즘은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와 신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호불호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게 되고, 댓글을 게시한 후에는 그 논리와 견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표현을 하거나 온라인 토론포럼에 참여해 정치표현을 하는 것이 당파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Cho et al., 2018).

한편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 개념을 토대로 정치표현의 효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이후, 자신이 표현한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다(Cialdini & Goldstein, 2004). 이러한 논리를 유튜브 뉴스 이용에 적용하면, 사회적 시청을 통해 댓글창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정치표현을 할 경우, 해당 의견을 유지하려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에 노출되는 것보다 개인이 직접 댓글창에서 정치표현을 하는 것이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예상이 설득력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다.

이런 정치표현은 사회적 시청 빈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표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치표현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 de Zúñiga et al., 2014).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됐다. 서울시 장 선거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은 댓글 달기, 공감 누르기, 채팅하기, 댓글을 통한 지지 의사 표현 등과 같은 행위를 증가시켰다(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9). 특히,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 의견 작성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과의 토론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향, 2015). 최지향의 연구에 따르면, 정파적 성향이 높은 개인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타인에게 정치표현을 더욱 자주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연구에서도 SNS 이용은 정보 추구 동기를 통해 견해가 다른 사람과의 정치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 Myers, 2016).

이러한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표현은 이용자의 자기표현 동기에 의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레인 등(Lane et al., 2019)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표현이 정치적 자기개념(political self-concept)과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동기(political self-presentation motivation)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소셜미디어 이용 중 정치표현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발한 사람으로 비취지고자 하는 이용자의 동기를 강화시키며, 이러한 자기표현 동기는 다시 정치표현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형성한다(Lane et al., 2019).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연결은 자기표현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며(Papacharissi, 2012), 온라인에서의 자기표현은 이용자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Ostman, 2012).

이처럼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유튜브 뉴스에서 사회적 시청을 많이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정치표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표현의 효과를 살피는 데 있어 빈도라는 단순한 양적 측면을 넘어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치표현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성적 정치표현과 감정적 정치표현이 주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토론을 시청하더라도 이성적이고 비판적 댓글을 작성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살피면서 의견 절충 효과가 발생했지만, 상대를 조롱하며 감정적 정치표현에 몰두하면 기존의 정치적 의견이 강화됐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최윤정, 2018b). 이성적 댓글 작성은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상대 의견의 노출을 통해 그들의 논리와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관용을 증가시켜 의견 절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를 조롱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경우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기존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에게 우호적 정치표현을 하는 경우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호적 정치표현을 하는 경우, 상대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발생했다(Lee & Cho, 2023).

대체로 사회적 시청 이용자는 유튜브 댓글창에서 평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하기 쉽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평소에 지지하지 않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반발해 파업을 한 의사라면 평소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라도 직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개혁 이슈에 대해 유튜브 댓글창에서 보수 정부 및 정당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

다. 나이가 보수 정당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지지가 약해지거나 비판적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 즉, 정치표현은 평소 개인의 정치 성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이해, 성별, 지역적 이슈 등의 다양한 요소들과 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표현을 정파적 정치표현(partisan political expression)과 교차적 정치표현(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으로 나누었다. 정파적 정치표현은 평소 지지하고 있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차적 정치표현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시청이 정파적 정치표현, 그리고 교차적 정치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 이론에 기반한다. 개인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확성 지향(accuracy goal)과 방향성 지향(directional goal)의 서로 다른 동기를 갖는다(Kunda, 1990). 정확성 지향 동기가 강력할 경우, 정치적 편견을 넘어서 정확한 의견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커져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 반대로, 방향성 지향 동기가 강한 경우에는 기존 의견을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근거를 선택적으로 찾는다.

정확성 지향 동기를 지닌 이용자는 동영상 내용이나 댓글창 토론을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Chen et al., 2022), 교차적 정치표현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에 많이 노출될수록 평소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던 정당 및 정치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쓰는 경험이 늘어났다(Lee & Cho, 2023). 자신의 정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이해하려는 개인의 정확성 지향 동기가 교차적 정치표현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방향성 지향 동기를 가진 이용자는 사회적 시청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접하게 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을 옹호하는 정치표현에 몰두할 수 있다. 강력한 당파성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 반대편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Chen et al., 2022; Taber & Lodge, 2006), 자신의 견해가 우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Vallone et al., 1985).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토론 공간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그룹을 향한 모욕적 언행과 비난 같은 감정적 정치표현들은 이용자의 방향성 지향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ang & Zhang, 2021). 이런 맥락에서, 방향성 지향 동기를 지닌 이용자라면 사회적 시청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정파적 정치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종합할 때,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은 이용자들의 자기표현 동기를 활성화시켜 정치표현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양승찬·이미나 신지희, 2019; 최지향, 2015; Gil

de Zúñiga et al., 2014; Lane et al., 2019; Ostman, 2012).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방향성 지향 동기가 활성화되면 정파적 정치표현이 촉진되고, 정확성 지향 동기가 활성화되면 교차적 정치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결과물이 발생하거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두 가지 가설에서 동일한 예측이 가능할 경우, 경쟁 가설을 통해 어느 가설이 더 타당한지 검증해볼 수 있다(양정애, 2010; Xenos & Moy,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시청과 정파적 정치표현의 관계, 사회적 시청과 교차적 정치표현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경쟁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 가설 1. 사회적 시청 빈도는 정파적 정치표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사회적 시청 빈도는 교차적 정치표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치표현과 정치적 태도극화

전통적 연구들은 개인이 집단적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태도와 일치하는 정치표현을 반복적으로 표출할 경우 정치적 태도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을 밝혀왔다(Brauer et al., 1995).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들은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극화(political polarization)를 심화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완화시킬 가능성을 모두 지니며, 이러한 효과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Coles & Saleem, 2021). 예를 들어 콜스와 살림의 연구는 인종적 분노의 정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표현이 인종 문제와 관련된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표현을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표현의 속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파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파적 정치표현은 선택적 노출과 감정적 표현이 결합된 산물로 선행 연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표현이 기존 의견을 강화하고 정치적 태도극화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토론 포럼에서 이용자가 정치 이슈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공감을 표할수록 정치적 신념과 당파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Cho et al., 2018).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선택적 노출의 결과로,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TV 토론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시청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조롱하거나 감정적 의사표현에 몰두하는 경우 기존 정치적 의견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2018b). 정치표현이 '메시지 작성'과 '공표'의

과정을 통해 표현 주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사람들이 당파적인 댓글 토론에 몰두할 경우 정치적 태도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Pingree, 2007).

그러나 교차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글쓰기를 통한 정치적 태도극화 완화 방안을 탐구한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Lee & Cho, 2023; Levendusky, 2018; Warner et al., 2020). 그 예로 워너 등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반대편의 관점에서 서사적 글쓰기(narrative writing)를 수행할 경우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악의적 귀인(malevolent motives)이 감소하고 태도극화가 완화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서사적 글쓰기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대입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한 글쓰기 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증진시킨다(Shaffer et al., 2019). 샤퍼 등의 연구는 이를 입증한 사례로 실험 참가자들이 임신 중 흡연 여성에 대한 서사적 글쓰기를 수행했을 때, 흡연 임신부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행동에 외부 귀인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공중 보건 이슈에서 서사적 글쓰기의 효과는 정치적 태도극화와 정파주의자들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치적 상대방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수행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태도극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레벤더스키(Levendusky, 2018)의 연구는 이런 논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그는 사람들이 내집단과 외집단,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our own party)과 상대 정당(the other party)을 구분하는 것이 태도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쓰도록 한 결과, 내집단 및 외집단 구분이 약화되면서 태도극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글쓰기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떠올리게 한 점이 태도극화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글쓰기 효과를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으로 확장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댓글창을 통해 정치적 글을 쓰고 의사 표현하는 행위는 선행 연구들이 주목한 글쓰기의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정파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를 심화시키는 반면, 교차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논의된 서사적 글쓰기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댓글로 정치표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관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 및 공표한 정치표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따라 기존 의견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인지부조화를 줄이려는 심리적 동

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Festinger, 1957; Pingree, 2007).

사회적 시청을 수행하는 이용자가 동기화된 추론 이론에서 설명하는 방향성 지향 동기 대신 정확성 지향 동기를 선택할 경우, 교차적 정치표현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정확성 지향 동기를 따른다면, 이용자는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기존 의견과 비교하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 후 댓글로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Holbert et al., 2013; Kunda, 1990). 사회적 시청에서 정확성 지향 동기는 이용자의 숙의적 사고를 활성화하고 교차적 정치표현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Chen et al., 2022). 다른 연구에서도 인터넷 정치 토론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정당이나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태도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Lee & Cho, 2023).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연구 가설 3. 정파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 교차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정치 표현의 방향성에 따른 매개효과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은 특정 매개변인을 통해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극화에 영향을 미친다(Chen et al., 2022; Shah et al., 2017). 특히 미디어 이용과 태도극화 사이의 매개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치표현의 매개 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은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을 각각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가정된다. 정파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교차적 정치표현은 태도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시청과 정치적 태도극화 간 관계에서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의 매개 효과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 가설 5. 정파적 정치표현은 사회적 시청 빈도와 정치적 태도극화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 기설 6. 교차적 정치표현은 사회적 시청 빈도와 정치적 태도극화의 관계를 부(-)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5)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의 조절된 매개효과

소셜미디어 이용에서 정치표현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 표현 성격 및 동기, 인지적 정교화 수준, 미디어 반응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최윤정, 2018b, 2018d; 최지향, 2015; Coles & Saleem, 2021; Lee & Cho, 2023). 본 연구는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과 정치적 태도극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표현을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가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효과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정치 성향 및 선택적 노출 정도에 따라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 강도를 의미하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은 개인의 정치 성향이 뉴스와 정보의 노출, 지각, 기억 등 전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민영, 2016; Stroud, 2010, 2011). 즉, 이용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예: 보수 혹은 진보)에 부합하는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대로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에서 선택적 노출이 발생할 경우, 선택적 노출의 발생 여부 자체보다 그 강도가 더 중요한 함의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민영(2016)의 연구에서는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한 개인이 보수적 언론을 빈번히 이용할수록 태도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진보적 성향이 강한 개인이 진보적 언론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Stroud(2010)의 연구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화당원 중 보수 미디어를 더 많이 시청하는 그룹에서 태도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민주당원 역시 진보 미디어를 더 많이 소비하는 그룹에서 태도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적극적이고 정파적 성향이 강한 개인일수록 정파적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정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슈에 대한 태도극화가 뚜렷할 수 있다(Levendusky, 2013).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은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뉴스와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 입장에 반대되는 정보를 회피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Johnson et al., 2009).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개인이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뉴스를 선택적으로 노출하는 경향과 정치 성향에 불일치하는 유튜브 뉴스를 회피하는 경향을 모두 포함하여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런 맥락을 통해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이용자라 하더라도,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강도가 높다면 정치적 태도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반대로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강도가 약할 경우, 태도극화가 완화될 가능성을 검증하려 했다.

앞서 매개효과를 논의하면서, 교차적 정치표현이 태도극화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시청 → 교차적 정치표현 → 정치적 태도극화 경로에서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약할수록 매개변인을 통해 태도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파적 정치표현은 태도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청 → 정파적 정치표현 → 정치적 태도극화 경로에서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강도가 높을수록 매개변인을 통해 정치적 태도극화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도는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가설 7. 사회적 시청 빈도가 정파적 정치표현을 통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강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더 클 것이다.

연구 가설 8. 사회적 시청 빈도가 교차적 정치표현을 통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약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더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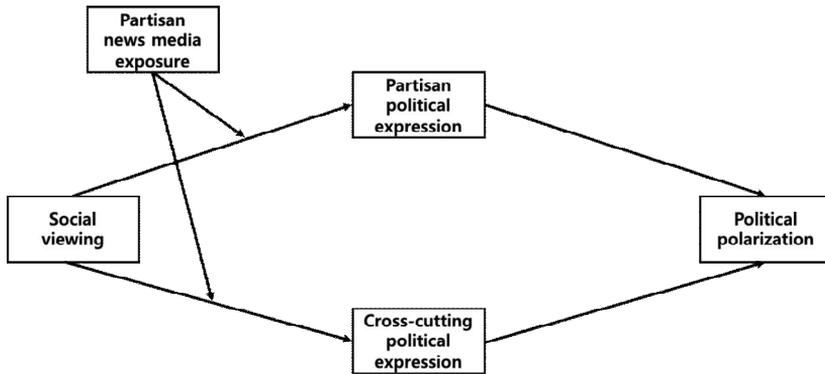


Figure 1.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iewing and political polarization

Note. Social viewing(사회적 시청),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Partisan news media exposure(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Political polarization(정치적 태도극화).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문 리서치 기업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 대상은 스크리닝 질문(screening question)을 통해 최근 한 달 이내 유튜브에서 뉴스 또는 정치 정보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의 뉴스 이용 행태, 정치표현,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 온·오프라인 정치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이었다. 정치 성향이 유튜브 뉴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피기 위해 보수, 진보, 중도 응답자를 약 3분의 1씩 배분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506명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응답자 성비는 남성 49.4%, 여성 50.6%였다. 성별은 남성 250명(49.4%), 여성 256명(50.6%)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됐다. 평균 연령은 44.93세였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80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93명(18.4%), 대학원 졸업 88명(17.4%) 순으로 많았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700~1,000만원 구간이 84명(16.6%)로 가장 많았으며, 400~500만원 구간이 79명(15.6%), 200~300만원 구간은 72명(14.2%)이었다.

정치 성향은 매우 강한 진보(1점)에서 매우 강한 보수(7점)까지로 측정했다($M = 3.99$, $SD = 1.22$). 1점~3점까지는 진보 성향, 4점은 중도 성향, 5~7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은 진보 173명(34.2%), 중도 173명(34.2%), 보수 160명(31.7%)였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1) 사회적 시청 빈도(Social Viewing)

사회적 시청 빈도는 사람들이 뉴스 및 시사 정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의견을 얼마나 자주 읽거나 토론에 참여하는지로 측정되어 왔다(Chadwick, 2017; Gil de Zúñiga et al., 2015, 2017; Vaccari et al., 2015).

본 연구는 동영상 기반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튜브에서 방송사 등에서 제공하는 뉴스 및 정치 정보를 시청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정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나는 유튜브로 뉴스나 정치 정보를 시청하면서 댓글을 읽는다', '나는 유튜브로 뉴스나 정치 정보를 시청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동영상

을 공유한다', 그리고 '나는 유튜브로 뉴스나 정치 정보를 시청하면서 관련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선택하였으며, 총 세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사회적 시청 빈도를 측정하였다($M = 3.49$, $SD = 1.34$, Cronbach's $\alpha = .69$). 추가적으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와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사회적 시청 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3.60$, $SD = 1.38$;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3.38$, $SD = 1.33$;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3.48$, $SD = 1.31$).

(2) 정치표현(Political Expression)

소셜미디어의 정치표현은 정치적 이슈나 정치 캠페인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의 정치 논평 등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으로 측정되었다(Gil de Zúñiga et al., 2014; Lee & Cho, 2023). 본 연구는 정치표현을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으로 나누어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했다.

① 정파적 정치표현(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본 연구에서 정파적 정치표현은 평소 지지하고 있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Lee & Cho, 2023). 이런 개념을 반영해 '나는 뉴스나 정치 정보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정당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적 있다', '나는 뉴스나 정치 정보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정당에 대해 우호적 댓글을 단 적이 있다'라는 두 가지 질문 항목에 대한 답변의 평균값으로 측정했다($M = 3.07$, $SD = 1.69$, Cronbach's $\alpha = .83$). 추가적으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와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정파적 정치표현의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3.10$, $SD = 1.73$;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2.90$, $SD = 1.59$;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3.20$, $SD = 1.76$).

② 교차적 정치표현(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본 연구에서 교차적 정치표현은 평소 지지하지 않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서 우호적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Lee & Cho, 2023). 이런 개념을 반영해 '나는 뉴스나

정치 정보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정당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적 있다, '나는 뉴스나 정치 정보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정당에 대해 우호적 댓글을 단 적이 있다'라는 두 가지 질문 항목에 대한 답변의 평균값으로 측정했다($M = 2.38$, $SD = 1.48$, Cronbach's $\alpha = .88$). 추가적으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와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교차적 정치표현의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2.40$, $SD = 1.58$;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2.43$, $SD = 1.45$;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2.31$, $SD = 1.40$).

(3) 정치적 태도극화(Attitude Polarization)

정치적 태도극화는 '이념 성향이 다른 정치 대상에 대한 태도 격차'로 정의가 된다(민영, 2016; Garrett et al., 2014; Iyengar et al., 2012; Levendusky, 2013, 2018; Stroud, 2010). 선행 연구들은 서로 다른 정치 이념 성향을 대표하는 대상으로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주요 정당 및 정치인을 선택한 뒤 각각의 선호도를 질문해 태도극화의 정도를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태도극화를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0점(매우 싫다)에서 10점(매우 좋다)까지의 범위에서 여당과 제1야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를 보고하였으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윤석열-이재명)에 대한 호감도 역시 동일한 척도로 평가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여당-야당 선호도 차이와 대통령-야당 대표 선호도 차이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정치적 태도극화 점수를 산출하였다($M = 3.78$, $SD = 2.92$, Cronbach's $\alpha = .86$).

(4)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Partisan News Media Exposure)

선택적 노출은 정보에 대한 선택과 회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선택적 이용과 회피 경향이 모두 높을 경우 '정파적 선택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민영, 2016; Iyengar & Hahn, 2009; Johnson et al., 2009). 본 연구는 유튜브 뉴스의 정파적 선택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자기보고식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우선, 보수적 성향의 유튜브 채널 이용은 '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지상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 이용한다' 및 '나는 여당에게 우호적인 지상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접한다'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유튜브 채널 이용은 '나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지상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 이용한다' 및 '나는 야당에게 우호적인 지상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접한다'

라는 문항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편성채널의 유튜브 채널 이용 및 정치 유튜브 채널 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수적 성향의 유튜브 뉴스 이용자의 정파적 뉴스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값은 보수 유튜브 채널과 여당 우호 유튜브 채널의 이용 값(선택적 이용 정도)과, 진보 유튜브 채널과 야당 우호 유튜브 채널 이용의 역코딩 값(선택적 회피 정도)을 더해 평균한 값으로 산출했다. 역으로 진보적 성향의 유튜브 뉴스 이용자의 정파적 뉴스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값은 진보 유튜브 채널과 야당 우호 유튜브 채널의 이용 값(선택적 이용 정도)과, 보수 유튜브 채널과 여당 우호 유튜브 채널 이용의 역코딩 값(선택적 회피 정도)을 더해 평균한 값으로 산출했다.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로 밝힌 응답자 170명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합하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에 선택적으로 노출된다는 가정이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성향 응답자 170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스스로를 보수 혹은 진보적 성향으로 밝힌 응답자 33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M = 4.84, SD = 0.90$). 추가적으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와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정파적 뉴스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4.69, SD = 0.83$;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 $M = 4.97, SD = 0.94$).

(5) 통제변인(Control Variable)

사회적 시청, 정치표현, 정치적 태도극화,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개인의 정치 성향 관련 변인들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Sex), 연령(Age), 최종 학력(Education), 월 평균 가구 소득(Income), 정치 성향(Political ideology)을 통제했다.

그 외에 정치지식(Political knowledge)($M = 6.30, SD = 2.08$),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M = 4.23, SD = 1.15$), 정치관심(Political interest)($M = 5.05, SD = 1.24$)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각각 경험한 정치 활동 6개씩 총 12개 항목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해 평균값을 산출했다($M = 2.57, SD = 1.31, Cronbach's \alpha = .94$).

4.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사회적 시청 빈도는 정파적 정치표현($r = .49$)과 교차적 정치표현($r = .39$)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태도극화는 정파적 정치표현($r = .19$)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은 정파적 정치표현($r = .13$) 및 정치적 태도극화($r = .60$)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교차적 정치표현($r = -.18$)과는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orrelation Among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1. Social viewing					
2.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49**				
3.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39**	.65**			
4. Attitude polarization	.06	.19**	-.08		
5.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10	.13*	-.18**	.60**	

Note. Social viewing(사회적 시청),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Partisan news media exposure(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Political polarization(정치적 태도극화).

* $p \leq .05$, ** $p \leq .01$.

2) 사회적 시청과 정치표현의 관계

사회적 시청 빈도와 두 가지 방향성의 정치표현과의 관계는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사회적 시청 빈도는 정파적 정치표현과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beta = .33$, $SE = 0.05$, $p < .001$)(<연구 가설 1> 지지).

한편 사회적 시청 빈도와 교차적 정치표현 간에도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beta = .18$, $SE = 0.05$, $p < .001$)(<연구 가설 2> 지지).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Political Expression

	Political expression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β (SE))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β (SE))
Sex ^{a)}	0.00(0.12)	-0.19(0.11)
Age	0.02(0.00)***	0.00(0.00)
Political ideology ^{b)}	-0.04(0.05)	0.04(0.04)
Education	0.03(0.05)	0.05(0.05)
Income	-0.01(0.03)	-0.01(0.03)
Political knowledge	-0.01(0.03)	-0.07(0.03)*
Political interest	0.07(0.06)	-0.01(0.06)
Political efficacy	-0.02(0.06)	-0.11(0.06)
Political participation	0.60(0.05)***	0.55(0.05)***
Social viewing	0.33(0.05)***	0.18(0.05)***
R^2	.44	.33
F	39.29***	24.87***

Note. Sex(성별), Age(연령), Political ideology(정치 성향), Education(최종 학력), Income(월 평균 가구 소득), Political knowledge(정치지식), Political interest(정치관심), Political efficacy(정치효능감), Political participation(정치참여), Social viewing(사회적 시청), Political expression(정치표현),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a)} M=1, F=2. ^{b)} 1=Liberal, 7=Conservative.
* $p < .05$. ** $p < .01$. *** $p < .001$.

3) 정치표현과 정치적 태도극화의 관계

<연구 가설 3>과 <연구 가설 4>는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이 각각 정치적 태도극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검증 결과, 정파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와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beta = .48$, $SE = 0.10$, $p < .001$)(<연구 가설 3> 지지). 반면, 교차적 정치표현은 정치적 태도극화와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beta = -.56$, $SE = .11$, $p < .001$)(<연구 가설 4> 지지). 자세한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Attitude Polarization

	Attitude polarization (β (SE))
Sex	0.48(0.24)*
Age	0.02(0.01)*
Political ideology	-0.04(0.09)
Education	-0.07(0.10)
Income	-0.05(0.05)
Political knowledge	0.13(0.06)*
Political interest	0.70(0.12)***
Political efficacy	0.05(0.12)
Political participation	0.15(0.12)
Social viewing	-0.16(0.11)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0.48(0.10)***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0.56(0.11)***
R^2	.25
F	13.95***

Note. Sex(성별), Age(연령), Political ideology(정치 성향), Education(최종 학력), Income(월 평균 가구 소득), Political knowledge(정치지식), Political interest(정치관심), Political efficacy(정치효능감), Political participation(정치참여), Social viewing(사회적 시청),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Attitude polarization(정치적 태도극화).

* $p < .05$. ** $p < .01$. *** $p < .001$.

4) 정치표현의 방향성에 따른 상이한 매개효과

두 가지 정치표현이 사회적 시청과 정치적 태도극화를 이어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변수 인지 검증하기 위해 헤이즈(Hayes)의 SPSS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모델 4번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 모두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정파적 정치표현은 사회적 시청 빈도와 정치적 태도극화를 정(+)의 방향으로 매개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beta = .16$, 95% $CI = (.07, .26)$](<연구 가설 5> 지지). 또한 교차적 정치표현은 사회적 시청 빈도와 정치적 태도극화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beta = -.10$, 95% $CI = (-.18, -.04)$](<연구 가설 6> 지지).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iewing and Attitude Polarization

Effect	Path	β	SE	95% CI	
				LLCI	ULCI
Direct effect	Social viewing → Attitude polarization	-0.16	-0.11	-.38	.05
Indirect effect	Social viewing →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 Attitude polarization	0.16	-0.05	.07	.26
	Social viewing →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 Attitude polarization	-0.10	0.04	-.18	-.04

Note. Social viewing(사회적 시청),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Attitude polarization(정치적 태도극화),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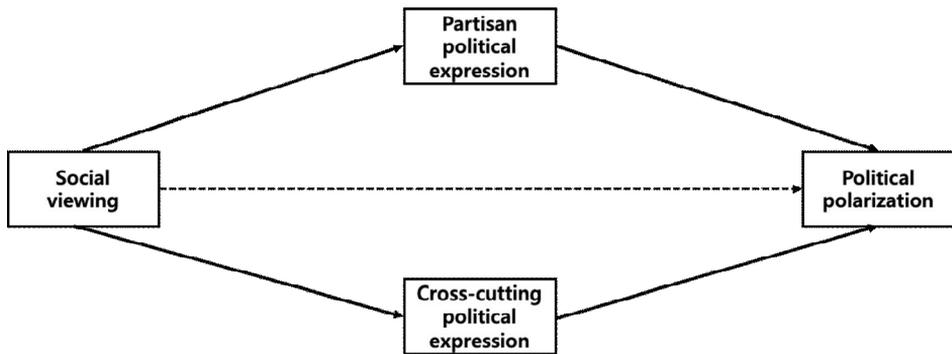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iewing and attitude polarization

Note. Social viewing(사회적 시청),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Attitude polarization(정치적 태도극화)

5)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는 사회적 시청에서 정치표현을 매개로 정치적 태도극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정파적 뉴스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조절된 매개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모델 7번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1〉에서 제시한 연구 모델에 따라,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정도가 사회적 시청과 정치표현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정치표현이 사회적 시청과 정치적 태도극화 사이의 매개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은 사회적 시청 빈도 → 교차적 정치표현 → 정치적 태도극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연구 가설 8〉 지지). 조절된 매개효과와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5〉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반면, 사회적 시청 빈도 → 정파적 정치표현 → 정치적 태도극화 경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연구 가설 7〉 기각).

Table 5.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β	SE	95% CI	
			LLCI	ULCI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0.02	0.03	-.02	.08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0.10	0.04	.03	.18

Note.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Partisan news media exposure(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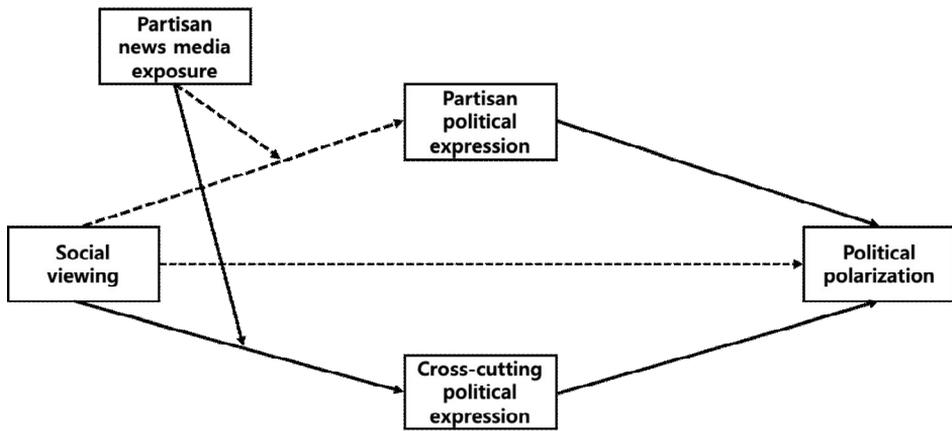


Figure 3.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Note.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Partisan news media exposure(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Attitude polarization(정치적 태도극화)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Table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차적 정치 표현을 매개로 한 사회적 시청 빈도의 정치적 태도극화에 대한 조절 효과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약한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beta = -0.22$, 95% CI = (-0.37, -0.10)]. 선택적 노출 강도가 보통인 집단에서도 태도극화의 완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0.13$, 95% CI = (-0.24, -0.15)]. 이는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 경향이 낮거나 보통인 이용자가 교차적 정치표현으로 인해 정치적 태도극화의 완화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강한 집단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식별하기 위

해 존슨-네이먼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적용해 본 결과, 전체 샘플의 약 72.67%에 해당하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평균값이 5.41인 집단까지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Neyman, 1936). 앞서 살펴본 단순기울기 분석의 $M+1SD$ 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정파적 정치표현을 매개로 한 경로에서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집단(노출 약함, 보통, 강함)에서 정파적 정치표현은 사회적 시청 빈도와 정치적 태도극화를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Intensity of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Mediator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β	SE	95% CI	
				LLCI	ULCI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Low	0.13	0.06	.03	.25
	Medium	0.14	0.06	.04	.28
	High	0.16	0.07	.04	.32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Low	-0.22	0.07	-.37	-.10
	Medium	-0.13	0.05	-.24	-.05
	High	-0.04	0.05	-.15	.05

Note.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정파적 정치표현),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교차적 정치표현), Partisan news media exposure(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이처럼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의 강도에 따라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원인은 두 가지 정치표현에 대한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의 조절 효과의 차이로 분석된다.

〈Figur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이 약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시청 빈도가 많을수록 교차적 정치표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이 강한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약하거나 보통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시청이 교차적 정치표현 증가로 이어지지만 선택적 노출이 강한 이용자들에게는 사회적 시청이 교차적 정치표현과 관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Figur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시청 빈도와 정파적 정치표현의 관계에서는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의 강도(약함, 보통, 강함)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사회적 시청 빈도가 많을수록 정파적 정치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교차적 정치표현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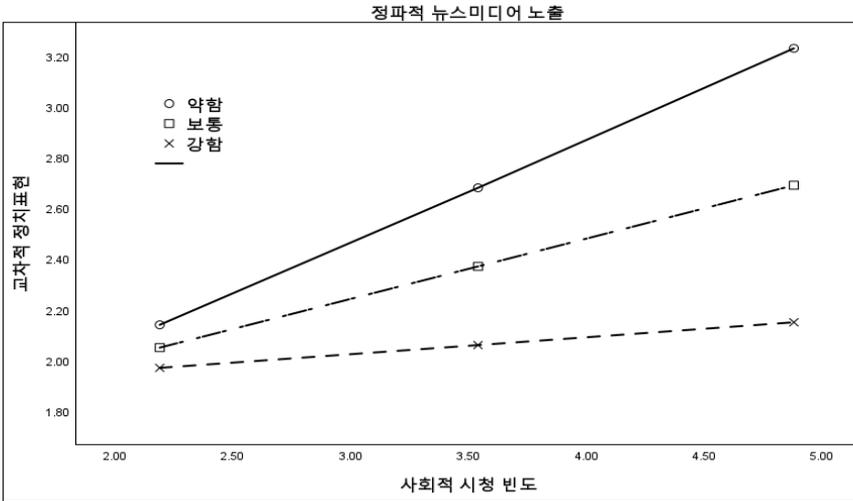


Figur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intens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iewing and cross-cutting political ex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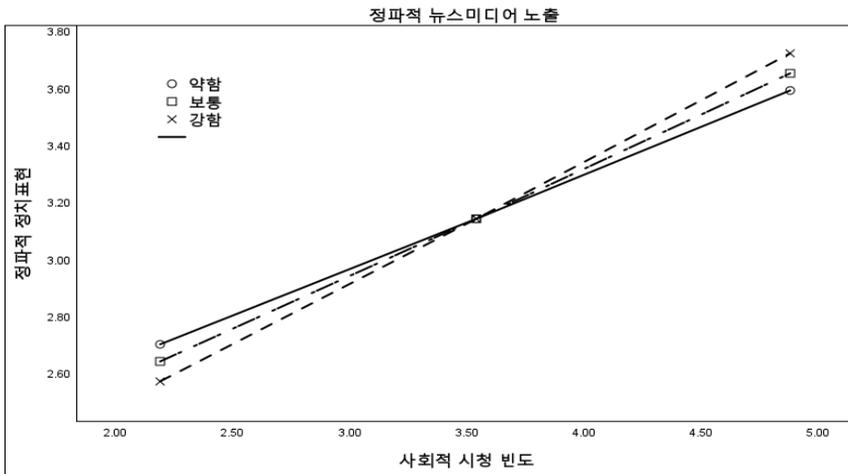


Figur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tisan news media exposure intens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iewing and partisan political expression

5. 결론 및 함의

미디어 이용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은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Kubin & von Sikorski, 2021). 일부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선택적 노출과 방어적 심리가 기존 태도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반면(Bakshy et al., 2015; Bail et al., 2018; Cho et al., 2018; Flaxman et al., 2016; Kim, 2019; Liang & Zhang, 2021), 다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정치 토론을 촉진하고 숙의를 유도해 기존 태도를 완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Beam et al., 2018; Chen et al., 2022; Lee & Cho, 2023; Lee & Myers, 2016).

본 연구의 결론은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이 교차적 정치표현을 통해 정치적 태도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타인의 입장에서 댓글을 작성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정치적 태도로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 경향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시청은 교차적 정치표현을 거치면 정치적 태도극화가 완화됐고, 반대로 정파적 정치표현을 거치면 태도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시청 과정에서 개인이 평소 지지하지 않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사안에 따라 우호적 댓글을 쓰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교차적 정치표현을 많이 할 경우 태도극화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치표현이 관용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태도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지지한다(Levendusky, 2018; Shaffer et al., 2019; Warner et al., 2020). 유튜브 뉴스 이용자가 유튜브 댓글창에서 평소의 정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지지하고 공감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진실 추구 노력이자 상대에 대한 관용이 담긴 비판적 숙의(deliberation) 과정의 결과물이다. 유튜브 뉴스 이용자는 비판적 숙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현한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따라 기존 의견을 조정하거나 완화하고 일부 이견을 수용하면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는 강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Festinger, 1957; Pingree, 2007).

이와 달리, 평소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에게 우호적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정파적 정치표현을 자주 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 신념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며 정치적 태도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댓글창에서는 편파적이거나 정파적 정치인의 메시지를 재생산하는 정치표현들이 자주 발견되며(유승현 등, 2022;

Kim et al., 2016; Shah et al., 2015; Trilling, 2015), 감정이 앞서서 정치표현은 개인의 기존 의견을 강화하고 태도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최운정, 2018b; Gill, 2022). 이처럼 정치표현이 태도극화에 미치는 정적(+) 및 부적(-) 매개효과가 검증된 것은, 글쓰기에 따르는 표현 효과가 표현 주체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 맥락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ingree, 2007).

그렇다면 정파적 정치표현이 태도극화를 심화시키고, 반대로 교차적 정치표현은 이를 완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시청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적 정치표현과 정파적 정치표현 모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심리적 동기와 온라인 정치 대화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동기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은 개인의 자기표현 동기를 활성화하는 주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Lane et al., 2019). 유튜브를 통해 뉴스와 정치 정보를 소비하며 댓글창을 활용하는 사회적 시청은 이러한 자기표현 동기를 더욱 강화하여 정치표현의 빈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정치 대화는 뉴스 이용으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매개하는 핵심 요인이며, 정치표현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Chen, 2021; Cho et al., 2009; Lee & Cho, 2023; Shah et al., 2017).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정치표현을 촉진하고(Gil de Zúñiga et al., 2014), 개인의 의견 작성과 타인과의 정치 토론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밝혀졌다(최지향, 2015; Lee & Myers, 2016).

특히, 사회적 시청 이용자가 정파적 또는 교차적 정치표현을 선택하는 이유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Kunda, 1990). 기존 신념을 유지하려는 방향성 지향 동기를 가진 개인은 유튜브 뉴스 이용 과정에서 정파적 정치표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흔히 접하는 욕설과 비방은 이용자의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방향성 지향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Liang & Zhang, 2021). 따라서 방향성 지향 동기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시청이 정파적 정치표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시청이 교차적 정치표현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정확성 지향 동기가 활성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확성 지향 동기를 가진 개인은 유튜브 뉴스의 동영상 내용이나 댓글 토론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더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Chen et al., 2022).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정확성 지향 동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치인의 의견에도 공감하는 정치표현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결론을 지지한다(Lee & Cho, 2023).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유튜브 뉴스의 사회적 시청에서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덜할수록 교차적 정치표현을 통한 정치적 태도극화의 완화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약한 그룹에서 태도극화의 완화 효과가

가장 컸으며 보통인 그룹에서도 이러한 완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됐다. 반면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강한 그룹에서는 교차적 정치표현을 통한 태도극화 완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약한 그룹이 진보 또는 보수 어느 방향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더라도 뉴스 이용 시 정확성 동기가 비교적 강하게 작용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Kunda, 1990).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한 뉴스 이용은 속의 과정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정치적 태도극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15). 또한, 정파적 뉴스미디어 선택적 노출이 보통 수준의 그룹에서도 태도극화의 완화 효과가 나타난 점은 선택적 노출이 극단적이지 않거나, 선택적 노출을 하더라도 이견이 담긴 정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 태도극화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Garrett & Stroud, 2014). 반면, 정파적 정치표현을 매개로 정치적 태도극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정파적 뉴스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의 강도와 상관없이, 모든 그룹(약한, 보통, 강한)에서 정치적 태도극화가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태도극화에 있어 선택적 노출의 강도보다 정파적 정치표현의 경험 여부가 더 강력하게 연관돼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파적 정치표현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 선택적 노출의 강도와 상관없이 태도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자신의 정치 신념과 다른 뉴스를 접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생각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내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려는 행위일 수 있다(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따라서, 사회적 시청에서 발견되는 정파적 정치표현은 방향성 지향 동기의 강력한 발현 결과이자, 글쓰기의 심리적 효과와 여론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 확신 등이 종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수진 등, 2021; 정다운·정성은, 2019; Kunda, 1990; Matthes et al., 2010).

이처럼 본 연구는 이용자의 정치 성향, 선택적 노출 정도, 정치표현 특성 등을 고려해 미디어 이용이 정치적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유튜브 뉴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정치표현을 통한 태도극화의 강화 또는 완화로 이어지는 매개경로를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관용을 증진시키고 태도극화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혀왔다(Huckfeld et al., 2004; Mutz, 2002; Scheufele et al., 2004,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효과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유효하며, 특히 유튜브 댓글을 통한 정치표현의 속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의 상반된 효과를 규명한 본 연구는, 정치표현이 메시지 작성과 공표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다(Pingree, 2007).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정치표현의 속성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논의와 부합한다(노성중·민영, 2009; 최지향, 2015; Lee & Cho, 2023).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정치표현을 하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가가 정치적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장윤재·이은주, 2010; 최윤정, 2018b).

본 연구는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교차적 정치표현은 관용과 숙의(deliberation)의 과정을 통해 태도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로임을 확인했다. 유튜브 뉴스 댓글창에서 상대 의견에 공감하거나 우호적 표현을 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적 신념에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반면 정파적 정치표현은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태도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정치적 태도 변화에 있어 표현 행위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뉴스 소비라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표현의 속성은 이용자의 태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차적 정치표현을 장려하고 정파적 정치표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된다면,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고 관용적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유튜브 뉴스 이용에서 정치적 태도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차적 정치표현의 역할이 중요함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교차적 정치표현을 촉진하려면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뉴스에서 정파적 이용 환경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창식·임영호, 2021). 특히 신문과 TV 뉴스를 통한 정보 소비와 비교할 때, 수많은 매체와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시스템이 활성화된 유튜브 환경에서 선택적 노출을 줄이는 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파적 뉴스미디어 노출의 조절 효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정치 지도자들의 양극화된 메시지가 개인의 태도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연구들(Levendusky, 2018; Stroud, 2010)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튜브 뉴스 댓글창에서 정치적 표현 행위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인지하고, 타인의 의견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뉴스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학문적, 실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녔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시청을 페이스북, 엑스 등 소셜미디어와 TV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튜브 플랫폼에 맞춘 새로운 조작적 정의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신뢰도 높은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 응답자들의 자기보고식 답변에 의존해 변인을 측정했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치표현의 경우 정파적 정치표현과 교차적 정치표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나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셋째, 태도극화에 대한 정치표현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속의 과정과 동기화된 추론 이론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넷째, 정치표현이 태도극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으나 반대로 태도극화가 정치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참여가 활발하고 태도극화가 심화된 이용자가 정치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는 통제 변인으로 정치참여를 포함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다섯째, 실제 유튜브 이용에서 교차적 정치표현의 빈도가 정파적 정치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교차적 정치표현이 발생하는 동기와 이러한 표현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향성 지향 동기는 정파적 정치표현으로, 정확성 지향동기는 교차적 정치표현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은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하고 연구설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연구 설계를 후속 연구로 기획해 그 방향성을 좀 더 정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 혹은 진보 성향에 따른 사회적 시청과 정치표현을 효과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 기획도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References

- Bae, J.-A., & Choi, S.-M. (2013). SNS interaction surrounding TV show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0(1), 47-92. [배진아·최소망 (2013). TV 시청과 SNS 상호작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권 1호, 47-92.]
- Bail, C. A., Argyle, L. P., Brown, T. W., Bumpus, J. P., Chen, H., Hunzaker, M. F., & Volfovsky, A. (2018). Exposure to opposing views on social media can increase political polar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37), 9216-9221.
- Bakshy E., Messing, S., & Adamic, L. A. (2015).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348(6239), 1130-1132.
- Barker, D., & Knight, K. (2000). Political talk radio and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4(2), 149-170.
- Barnidge, M., Gil de Zúñiga, H., & Diehl, T. (2017). Second screening and political persuasion on social media.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61(2), 309-331.
- Barnidge, M., Gunther, A. C., Kim, J., Hong, Y., Perryman, M., Tay, S. K., & Knisely, S. (2020). Politically motivated selective exposure and perceived media bias. *Communication Research*, 47(1), 82-103.
- Beam, M. A., Child, J. T., Hutchens, M. J., & Hmielowski, J. D. (2018). Context collapse and privacy management: Diversity in Facebook friends increases online news reading and sharing. *New Media & Society*, 20(7), 2296-2314.
- Bennett, W. L., & Iyengar, S. (2008). A new era of minimal effects? The changing foundations of political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8(4), 707-731.
- Bond, R. M., Shulman, H. C., & Gilbert, M. (2018). Does having a political discussion help or hurt intergroup perceptions? Drawing guidance from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contact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2, 4332-4352.
- Brauer, M., Judd, C. M., & Gliner, M. D. (1995). The effects of repeated expressions on attitude polarization during group discu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014-1029.
- Chadwick, A. (2017). *The hybrid media system: Politics and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H. T. (2021). Second screening and the engaged public: The role of second screening for news and political expression in an OSROR model.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8(2), 526-546.

- Chen, H. T., Kim, Y., & Chan, M. (2022). Just a glance, or more? Pathways from counter-attitudinal incidental exposure to attitude (de)polarization through response behaviors and cognitive elabor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72(1), 83-110.
- Cho, J., Ahmed, S., Keum, H., Choi, Y. J., & Lee, J. H. (2018). Influencing myself: Self-reinforcement through online political expression. *Communication Research*, 45(1), 83-111.
- Cho, J., Shah, D. V., McLeod, J. M., McLeod, D. M., Scholl, R. M., & Gotlieb, M. R. (2009). Campaigns, reflection, and deliberation: Advancing an OSROR model of communication effects. *Communication Theory*, 19(1), 66-88.
- Choi, C. S., & Im, Y.-H. (2021). Sentim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on partisanship in the presidential coverag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5(1), 35-70. [최창식·임영호 (2021). 대통령 관련 보도의 감성 분석과 정당성의 지형: 신문별 감성지수의 차이, 일관성, 대통령 지도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권 1호, 35-70.]
- Choi, J. (2015). The effects of cross-cutting exposure in online social network sit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cross-cutting observation, cross-cutting involvement, and strength of partisanship.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59(5), 152-177. [최지향 (2015).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내에서의 이견노출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견관찰, 이견관여, 당파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5호, 152-177.]
- Choi, J., & Lee, H. (2023). *Digital news reports in Korea 2023*. Korea Press Foundation. [최진호·이현우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 Choi, Y. J. (2014). Watching TV while catting online: The concept explication of “Social viewing”.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8(4), 315-355. [최윤정 (2014). TV 시청과 온라인 대화의 결합: 사회적 시청 개념 제시와 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8권 4호, 315-355.]
- Choi, Y. J. (2018a). Effects of media orality and issue obtrusiveness on the level of social viewing: Focusing on online community and KakaoTalk discussions on the TV presidential debate in 2017.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2(2), 134-173. [최윤정 (2018a). 미디어의 구술성과 토론 주제의 돌출성이 사회적 시청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2017년 TV 대선 토론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2권 2호, 134-173.]
- Choi, Y. J. (2018b). Effects of cross-cutting exposure on opinion conformity, convergence, and reinforcement.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9(1), 5-42. [최윤정 (2018b). 사회적 시청에서 이견노출이 의견의 동조, 강화, 절충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9권 1호, 5-42.]

- Choi, Y. J. (2018c). Effects of television program quality and openness on immersion, decoding and viewing satisfaction in social viewing contex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2(6), 160-200. [최윤정 (2018c). 사회적 시청에서 프로그램의 품질과 개방성이 몰입, 해독, 시청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2권 6호, 160-200.]
- Choi, Y. J. (2018d). Effects of social viewing of presidential TV debates on candidate evaluation: An analysis of the path leading to candidate evaluation change through reaction to opponent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103, 216-250. [최윤정 (2018d). 선거 토론에 대한 사회적 시청이 의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의견 거리, 상대 의견에 대한 반응, 의견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 분석. <방송통신연구>, 103호, 216-250.]
- Cialdini, R. B., & Goldstein, N. J. (2004).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91-621.
- Coles, S. M., & Saleem, M. (2021). Social media expression and user predispositions: Applying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media effects model to the study of issue polarization. *Social Media+ Society*, 7(4). <https://doi.org/10.1177/20563051211052907>
- Eom, K., & Park, J. (2024). The effects of cross-cutting exposure and critical viewing on attitudinal polarization in YouTube news uses: Testing for a dual mediation effect. *Journal of Social Science*, 50(1), 4-30. [엄기영·박진우 (2024). 유튜브 뉴스 이용에서 이견노출과 비판적 시청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0권 1호, 4-30.]
- Eveland, W. P., Jr. (2004). The effect of political discussion in producing informed citizens: The roles of information, motivation, and elabo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2), 177-193.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Flaxman, S., Goel, S., & Rao, J. M. (2016). Filter bubbles, echo chambers, and online news consump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80(1), 298-320.
- Garrett, R. K., Gvirsman, S. D., Johnson, B. K., Tsfati, Y., Neo, R., & Dal, A. (2014). Implications of pro-and counterattitudinal information exposure or affective polariz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0(3), 309-332.
- Garrett, R. K., & Stroud, N. J. (2014). Partisan paths to exposure diversity: Differences in pro-and counterattitudinal news consump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680-701.
- Giglietto, F., & Selva, D. (2014). Second screen and participation: A content analysis on a full season dataset of tweets. *Journal of Communication*, 64(2), 260-277.

- Gil de Zúñiga, H., Diehl, T., Huber, B., & Liu, J. (2017). Personality traits and social media use in 20 countries: How personality relates to frequency of social media use, social media news use, and social media use for social intera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0(9), 540-552.
- Gil de Zúñiga, H., Garcia-Perdomo, V., & McGregor, S. C. (2015). What is second screening? Exploring motivations of second screen use and its effect 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5(5), 793-815.
- Gil de Zúñiga, H., Jung, N., & Valenzuela, S. (201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3), 319-336.
- Gil de Zúñiga, H., Molyneux, L., & Zheng, P. (2014). Social media, political express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anel analysis of lagged and concur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612-634.
- Gill, H. (2022). Testing the effect of cross-cutting exposure to cable TV news on affective polarization: Evidence from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66(2), 320-339.
- Holbert, R. L., Weeks, B. E., & Esralew, S. (2013). Approaching the 2012 US presidential election from a diversity of explanatory principles: Understanding, consistency, and hedonis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7(12), 1663-1687.
- Huckfeldt, R., Mendez, J. M., & Osborn, T. (2004). Disagreement, ambivalence, and engagemen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25(1), 65-95.
- Iyengar, S., & Hahn, K.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 Iyengar, S., Sood, G., & Lelkes, Y.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 Jang, S., & Han, J. (2021). Does YouTube polarize its viewers? Analysis of the survey on subscribers to major political channels. *Contemporary Political Studies*, 14(2), 5-35. [장승진·한정훈 (2021). 유튜브 보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14권 2호, 5-35.]
- Jang, Y. J., & Lee, E.-J. (2010). Effects of reading, writing, and opinion diversity in online discuss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54(2), 277-298. [장윤재·이은주 (2010). 온라인 계

시판 토론에서 읽기, 쓰기, 그리고 의견 다양성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277-298.]

- Jeong, D.-E., & Chung, S. (2019). How does the majority silence the minority? Tests of mediating effects of isolation fear and debate success expectan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3(5), 190-229. [정다운·정성은 (2019). 다수 의견은 소수 의견을 어떻게 침묵에 이르게 하는가?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언론학보>, 63권 5호, 190-229.]
- Johnson, P. O., & Neyman, J. (1936). Tests of certain linear hypothesis and their application to some educational problems. *Statistical Research Monories*, 1, 57-93.
- Johnson, T. J., Bichard, S. L., & Zhang, W. (2009). Communication communities or “cyberghettos”? A path analysis model examining factors that explain selective exposure to blog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5(1), 60-82.
- Katz, E., Blumler, J. G., & Gurevitch, M. (1973). Uses and gratifications research.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7(4), 509-523.
- Kim, J., Lee, Y. O., & Park, H. W. (2016). Delineating the complex use of a political podcast in South Korea by hybrid web indicators: The case of the Nakkomsu Twitter network.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0, 42-50.
- Kim, Y. (2015). Does disagreement mitigate polarization? How selective exposure and disagreement affect political polariz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4), 915-937.
- Kim, Y. (2019). How cross-cutting news exposure relates to candidate issue stance knowledge, political polarization, and participation: The moderating role of political sophist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1(4), 626-648.
- Knobloch-Westerwick, S., & Meng, J. (2009). Looking the other way: Selective exposure to attitude-consistent and counterattitudinal poli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6(3), 426-448.
- Kubin, E., & von Sikorski, C. (2021). The role of (social) media in political polarization: A systematic review.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5(3), 188-206.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498.
- Kwak, N., Lane, D. S., Weeks, B. E., Kim, D. H., Lee, S. S., & Bachleda, S. (2018). Perceptions of social media for politics: Testing the slacktivism hypothe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4(2), 197-221.

- Lane, D. S., Lee, S. S., Liang, F., Kim, D. H., Shen, L., Weeks, B. E., & Kwak, N. (2019). Social media expression and the political self. *Journal of Communication*, 69(1), 49-72.
- Lee, E.-J. (2011). Perceived bias of biased perception? Effects of others' comments, perceived opinion climate, and issue involvement on perceived news slan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55(3), 179-198. [이은주 (2011). 지각된 편향인가 편향된 지각인가? 댓글의 내용, 여론에 대한 인식과 이슈 관여도에 따른 기사의 논조 지각. <한국언론학보>, 55권 3호, 179-198.]
- Lee, J., & Myers, T. A. (2016). Can social media change your mind? SNS use, cross-cutting exposure and discussion, and political view change. *Social Media Studies*, 2(2), 87-97.
- Lee, N. Y., & Cho, Y. (2017). Partisan knowledge learning or partisan interpretations: The influence of partisan media usage on attitude polarization toward partisan issu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1(5), 204-240. [이나연·조윤정 (2017). 지식 습득인가 정파적 해석인가: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1권 5호, 204-240.]
- Lee, S., & Cho, J. (2023). Communication mediation in an era of partisan selectivity: Modeling effects of information and discussion on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5, 1-12.
- Levendusky, M. S. (2013). Why do partisan media polarize vie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3), 611-623.
- Levendusky, M. S. (2018). Americans, not partisans: Can priming American national identity reduce affective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80(1), 59-70.
- Liang, H., & Zhang, X. (2021). Partisan bias of perceived incivility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Evidence from survey experim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ommunication*, 71(3), 357-379.
- Matthes, J., Rios Morrison, K., & Schemer, C. (2010). A spiral of silence for some: Attitude certainty and the expression of political minority opinions. *Communication Research*, 37(6), 774-800.
- Min, Y. (2016). Citizens' selective news use in an election: The caus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partisan selectivity and news selectivi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0(2), 7-34. [민영 (2016). 선택적 뉴스 이용: 정파적 선택성과 뉴스 선택성의 원인과 정치적 함의.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7-34.]
- Min, Y., Lee, H., Lee, H., & Kim, J., (2020). *2020 General election and Youtube*. Korea Press Foundation. [민영·이훈·이호영·김지원 (2020). <2020 총선과 유튜브>. 한국언론진흥재단.]
- Mutz, D. C. (2002).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838-855.

- Mutz, D. C., & Martin, P. S. (2001). Facilitating communication across lines of political difference: The role of mass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97-114.
- Ostman, J. (2012). Information, expression, participation: How involvement in user-generated content relates to democratic engagement among young people. *New Media & Society*, 14(6), 1004-1021.
- Papacharissi, Z. (2012). Without you, I'm nothing: Performances of the self on Twi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6, 1989-2006.
- Pingree, R, J. (2007). How messages affect their senders: A more general model of message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deliberation. *Communication Theory*, 17(4), 439-461.
- Robbins, I. P. (2013). What is the meaning of like: The first amendment implications of social media expression. *Federal Courts Law Review*, 7, 127-151.
- Roh, S., & Min. Y. (2009). The coexistence of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eliberative political dialogu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oss-cutting exposur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53(3), 173-197. [노성중·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173-197.]
- Scheufele, D. A., Hardy, B. W., Brossard, D., Waismel-Manor, I. S., & Nisbet, E. (2006). Democracy based on difference: Examining the links between structural heterogeneity, heterogeneity of discussion networks, and democratic citize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56(4), 728-753.
- Scheufele, D. A., Nisbet, M. C., Brossard, D., & Nisbet, E. C. (2004). Social structure and citizenship: Examining the impacts of social setting, network heterogeneity, and informational variabl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3), 315-338.
- Shaffer, V. A., Bohanek, J., Focella, E. S., Horstman, H., & Saffran, L. (2019). Encouraging perspective taking: Using narrative writing to induce empathy for others engaging in negative health behaviors. *PLoS One*, 14(10), e0224046.
- Shah, D. V., Hanna, A., Bucy, E. P., Wells, C., & Quevedo, V. (2015). The power of television images in social media age: Linking biobehavior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via the second scree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9, 225-245.
- Shah, D. V., McLeod, D. M., Rojas, H., Cho, J., Wagner, M. W., & Friedland, L. A. (2017). Revising the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for a new political communication ecolog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3(4), 491-504.

- Stroud, N. J. (2007). Media effects, selective exposure, and Fahrenheit 9/11. *Political Communication*, 24(4), 415-432.
-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56-576.
- Stroud, N.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Oxford University Press.
- Sunstein, C. R. (2007). *Republic.com 2.0: Revenge of the blog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 Trilling, D. (2015). Two different debate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litical debate on TV and simultaneous comments on twitter.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3), 259-276.
- Vaccari, C., Chadwick, A., & O'Loughlin, B. (2015). Dual screening the political: Media events, social media, and citizen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65(6), 1041-1061.
- Vaccari, C., & Valeriani, A. (2018). Dual screen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eight western democrac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3(3), 367-388.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577-585.
- Warner, B. R., Horstman, H. K., & Kearney, C. C. (2020). Reducing political polarization through narrative writing.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48(4), 459-477.
- Xenos, M., & Moy, P. (2007). Direct and differential effects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704-718.
- Yang, J. A. (2010). Indirect effects of mood on persuasino process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54(1), 387-410. [양정애 (2010). 피설득자의 기분이 설득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 387-410.]
- Yang, S., Lee, M., & Shin, J. (2019) Gender gap by news meida use and internet discussion efficacy and its effects to political participation on online. *Communication Theories*, 15(1), 57-90. [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9). 뉴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 토론 효능감이 선거과정 온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이론>, 15권 1호, 57-90.]
- Yoo, S., Park, M., Kwak, E., & Kim, B. (2022).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YouTube in the 2022*

election. 2022 Presidential Election Media Watch Coalition. [유승현·박만수·곽은아·김범준 (2022). <2022 대선에서 유튜브가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Yoon, S., Choi, J., & Sohn, D. (2021). Why we remain silent: Socio-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different types of silence in social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5(4), 148-184. [윤수진·최진호·손동영 (2021).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 소셜미디어 여론에서 나타나는 침묵의 종류와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65권 4호, 148-184.]

최초 투고일 2024년 12월 06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1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5년 02월 03일